

보도시점 : 2026. 7. 22.(수) 11:00 이후(7. 23.(목) 조간) / 배포 : 2026. 7. 22.(수)

올여름 안전한 휴가길 최우선... 극한호우·기상이변 철저 대응

- 7월 25일부터 특별교통대책 시행... 침수 우려 지하차도 차단 시설 가동 및 지능형 CCTV로 비탈면 실시간 모니터링
- AI 기반 사고주의 구간 40개소 집중 안내... 폭염·강풍 비상계획 구축
- 고속도로 59개 구간 갓길차로 개방, 대중교통 운행 11% 확충도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일간을 “특별교통대책기간”으로 정하고, 관계기관 합동 “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”을 시행한다.

○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가운데,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과 지능형 CCTV를 통한 비탈면 모니터링 등 기상이변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. 또한, 일평균 614만 명에 달하는 최대 규모 이동 수요에 대응해 대중교통 공급을 11% 늘리는 한편 고속도로 갓길차로 임시 개방과 일반국도 9개 구간을 신규 개통한다.

<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> 주요 내용

기상이변 대비	- 극한호우 시 지하차도 진입 차단 및 비탈면 실시간 CCTV 점검
안전 운전	- AI가 선정한 사고주의 구간 40개소 도로전광판 실시간 안내
대중교통 이용할 때	- 운행 횟수 11.1% ↑ / 좌석 8.3% ↑
차량으로 이동할 때	- 일반국도 9개 구간 신규 개통 - 고속도로 59개 구간 갓길차로 운영 - 모바일 앱·도로 전광판 통해 차량흐름과 우회도로 실시간 안내
기차로 이동할 때	- 코레일 앱에서 기차표 예매와 숙박 예약을 한 번에 해결
공항을 이용할 때	- 인천공항 ‘스마트 패스’ 전용 출국장 확대(3→5개) - 인천공항 T2 셔틀 증편

□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기간 동안 하루 평균 614만 명, 총 1억 43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. 이는 지난해 (하루 평균 605만 명)보다 1.5% 늘어난 규모다.

○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*에 따르면, 응답자의 51.5%가 여름휴가 의향이 있으며, 이 중 86.3%는 국내, 13.7%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휴가 계획은 7월 25일부터 31일까지가 가장 많았으며, 국내 여행지로는 동해안권(26.4%)을 가장 선호했다.

* 2026년 하계 휴가 통행실태 조사(조사기관 : 한국교통연구원)

- 조사기간 / 방법 : '26. 6.23 ~ 6. 29 /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

- 조사표본 : 10,123명 (신뢰수준 95%, 표본오차 $\pm 0.97\%$)

○ 또한, 이동할 때는 대부분 승용차(83.8%)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, 고속도로 일 평균 통행량은 전년(540만 대) 대비 0.6% 늘어난 543만 대로 예상된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교통대책에서 ▲원활한 교통소통, ▲휴가객의 편의·서비스 증대, ▲교통안전 강화, ▲대중교통 수송력 확대, ▲기상 악화 대응 강화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.(☞ 세부내용 참고 첨부)

① (원활한 교통소통) 설 명절 이후 일반국도 9개 구간(65km)을 신규 개통하고, 고속도로 59개 구간(371.62km)에 갓길차로를 운영한다.

○ 또한 고속·일반국도 234개 구간(1,872km)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, 모바일 앱·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통소통 상황 및 우회도로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.

② (휴가객의 편의 증대) 승용차 이용자를 위해 휴게소 혼잡관리 및 편의 시설을 확충하며,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도 제공한다.

○ 코레일 앱에서 직접 숙박 예약도 가능토록 서비스를 개선하고, 공항 이용 편의를 위해 인천공항 제2터미널 셔틀버스 증편,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을 확대(3→5개소)하며, 임시주차장(9,116면)도 추가로 확보한다.

③ (교통안전 강화) 도로·철도·항공·해운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, 사고현황 및 차량운행 정보 등 교통 빅데이터를 AI기술로 분석하여 선정한 교통사고 주의구간 (40개소)을 도로전광판에 표출하는 등 휴가길 교통안전을 강화한다.

④ (대중교통 수송력 확대)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·철도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1.1%(37,452회), 8.3%(207.6만 석) 늘린다.

⑤ (기상악화 등 대응태세 강화)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·대피유도시설을 운영하고, 지하차도 통제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며, 지능형 CCTV를 이용하여 비탈면 낙석 등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등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.

○ 또한, 폭염·강풍 등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열차 서행, 항공기 우회, 공항 체류객 지원 등 대응계획도 준비하고, 비상상황 발생에 대응하여 관계 기관 협업체계도 강화한다.

□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“여름 휴가철에는 교통량 증가와 집중 호우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여행 출발 전 교통혼잡 및 기상 정보를 꼭 확인하고 안전운전에 특히 유의해 달라”고 당부하며,

○ “특히, 무더운 날씨와 피로 누적으로 인한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와 ‘쉬어가는 운전’을 실천해 주실 것”을 강조했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참고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종합교통정책관 교통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안광열 (044-201-3804)
		담당자	사무관	김병진 (044-201-3786)
			주무관	안승현 (044-201-3793)
담당 정책 <교통안전>	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윤우 (044-201-3230)
		담당자	주무관	정선경 (044-201-3864)
<버스>	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	책임자	과 장	나진항 (044-201-3823)
		담당자	사무관	박삼범 (044-201-3824)
<도로>	도로국 디지털도로팀	책임자	사무관	장유진 (044-201-3928)
		담당자	사무관	전미자 (044-201-4135)
<철도>	철도국 철도운영과	책임자	과 장	강 욱 (044-201-3970)
		담당자	서기관	임상준 (044-201-4631)
<항공>	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영혜 (044-201-4204)
		담당자	서기관	김동현 (044-201-4184)
공 동 <해운>	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	책임자	과 장	심상철 (051-773-5730)
		담당자	사무관	송현주 (051-773-5733)


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
MOVE : TOMORROW